화면으로 만나는 태백산
유아숲학교

물방울 여행기

-한강의 시작, 검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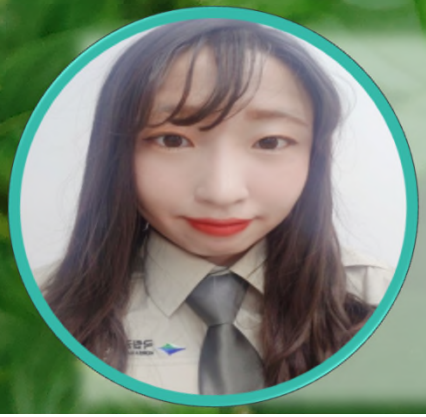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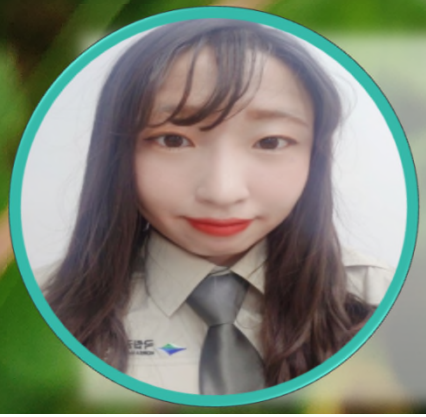
각시취



우리 친구들~안녕?
아까 만났던
태백산국립공원 천서경 해설사,
꽃받침 선생님이에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산솜방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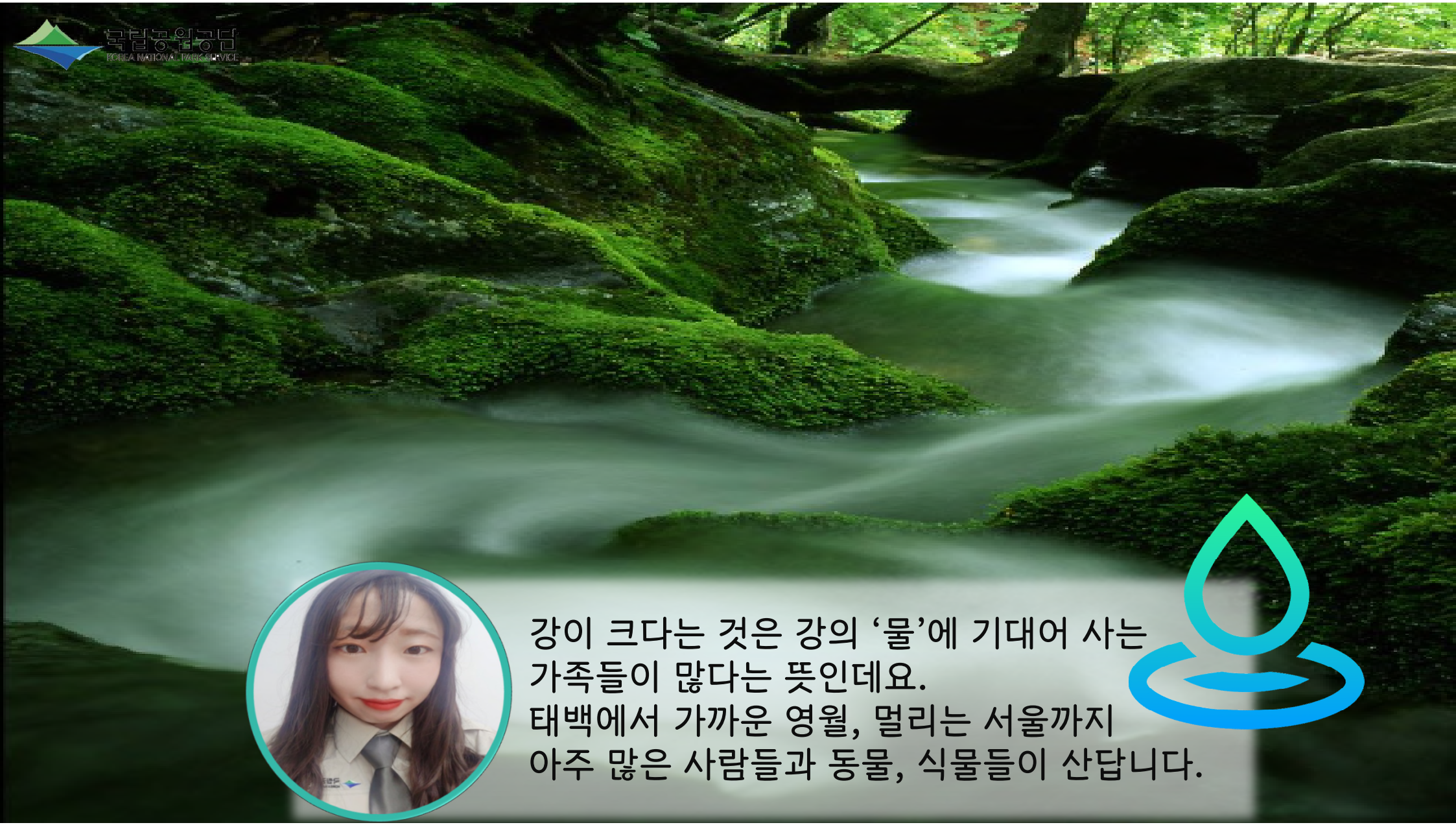


이번 시간에는
태백산국립공원의 검룡소와 '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룡소에 와본 친구 있나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우리 고장인 태백에는 우리나라의
큰 5개의 강 중에서
가장 큰 강과 가장 긴 강의 시작인데요.
가장 큰 강인 '한강'의 시작이 바로 검룡소입니다.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강이 크다는 것은 강의 '물'에 기대어 사는
가족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태백에서 가까운 영월, 멀리는 서울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과 동물, 식물들이 산답니다.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또한 태백 시내에 있는 황지 연못,
모두 가보았죠?
태백에서 부산으로 흘러 남해까지 가는
가장 긴 낙동강의 시작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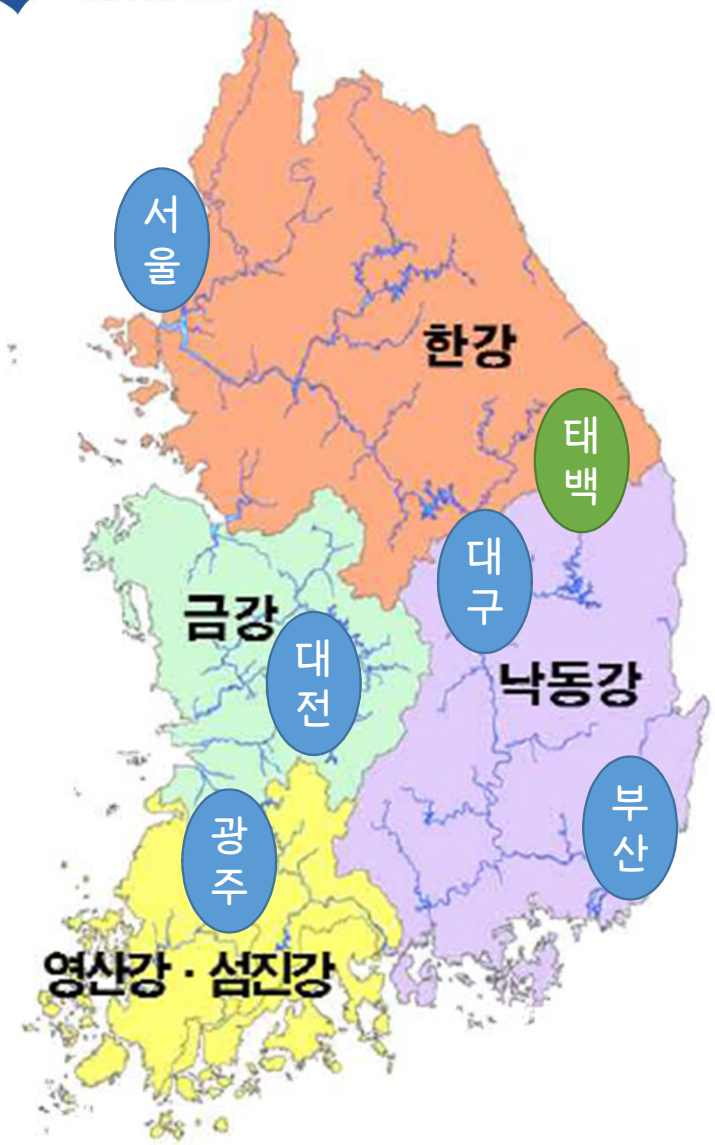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 제15회 사진공모전
한강의시작 - 박윤준



우와, 어때요?
우리 고장인 태백, 정말 근사한 곳이죠?
이곳에 사는 친구들이 물을 사랑해준다면
더욱 많은 가족들이 물을 깨끗하게 쓸 수 있을 거에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물이 없다면
사람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두 살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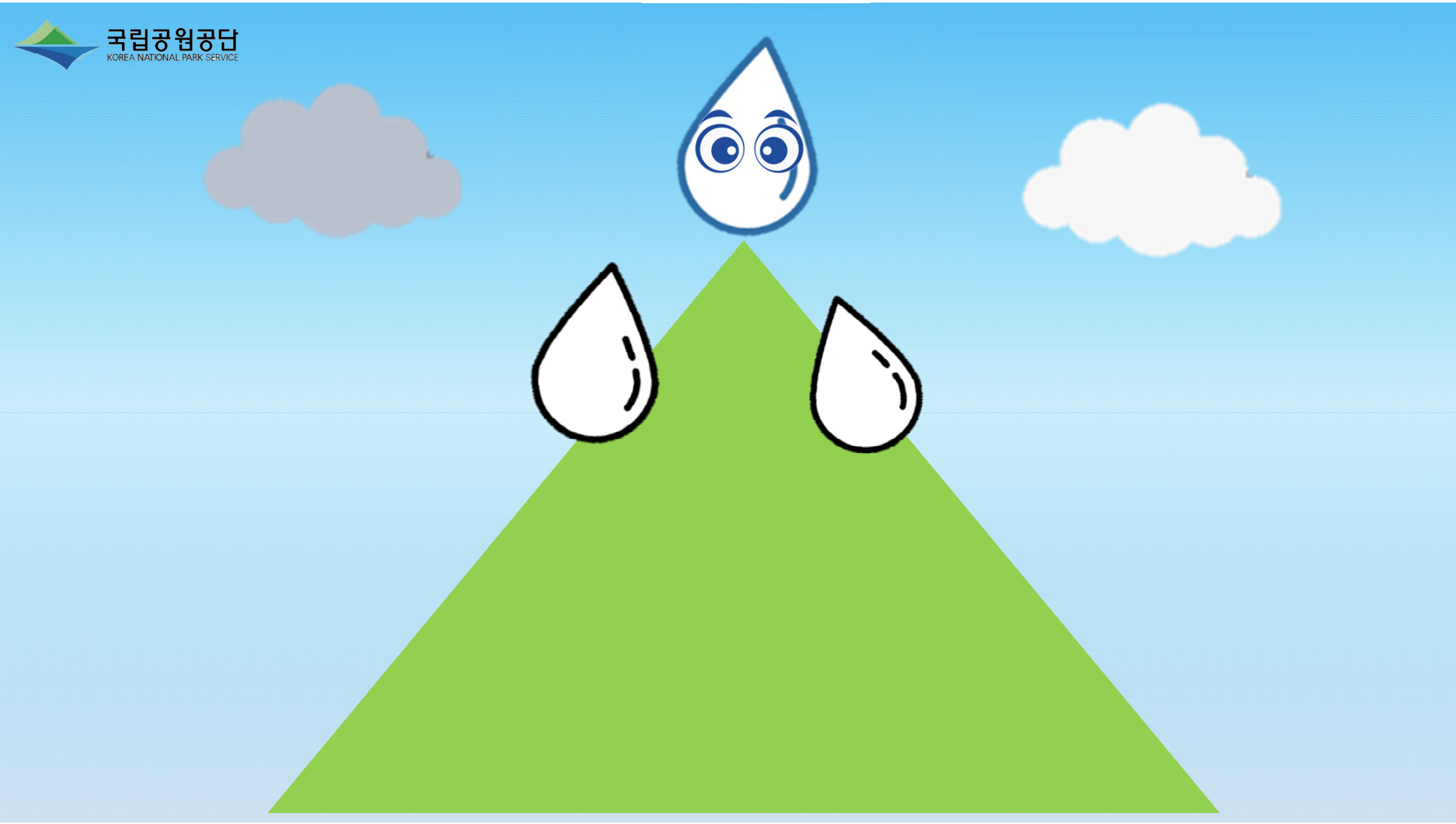
친구들~
여기 우리나라의 물 지도가 있어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섬진강인 5개의 큰 강이
4개의 색깔로 나뉘어 있죠?
큰 강 주변엔 숲이 만들어졌고
강과 숲 사이에 사람이 살기 좋아 도시가 생겼죠.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우리고장 전설 이야기: 삼수령 전설

물방울 여행기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정말요?
전 어디로 가나요?
깊은 산 속~ 검룡소,
내가 와서 먹지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으앙>_<
몸이 더러워졌어!



시원하다~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아기물방울아,
여긴 땅이야!
넌 지하수란다.



으앙ㄱ_ㄱ
여긴 어디야ㅠㅅ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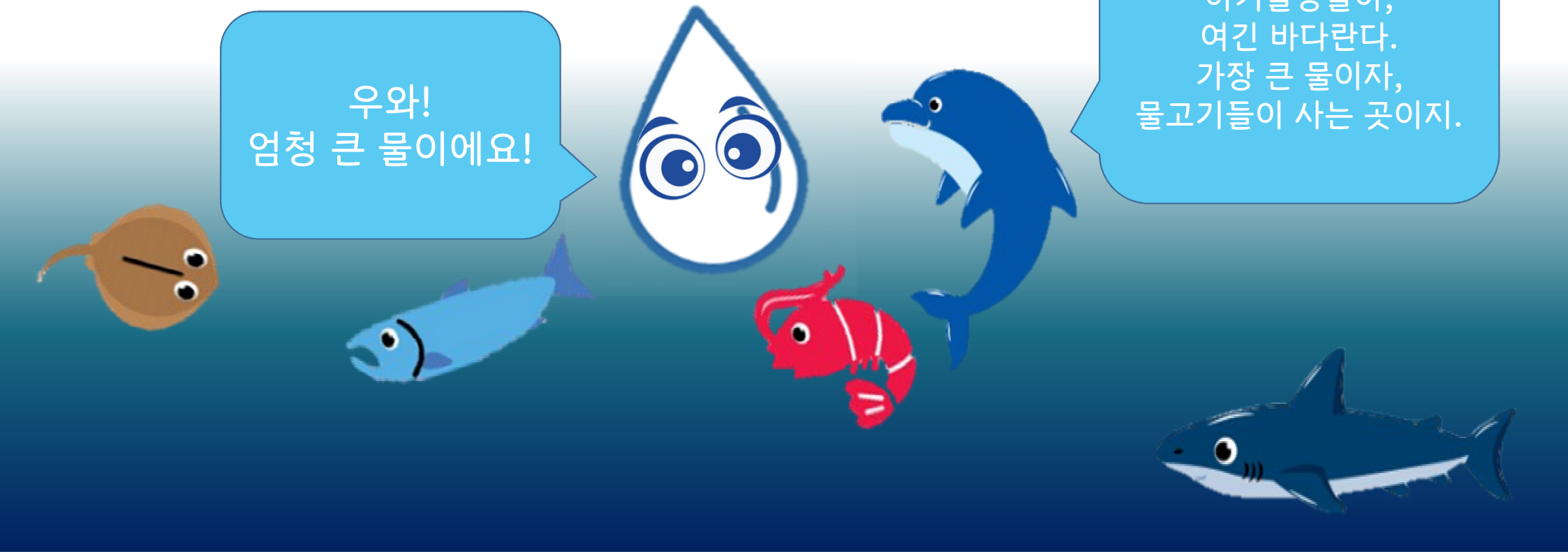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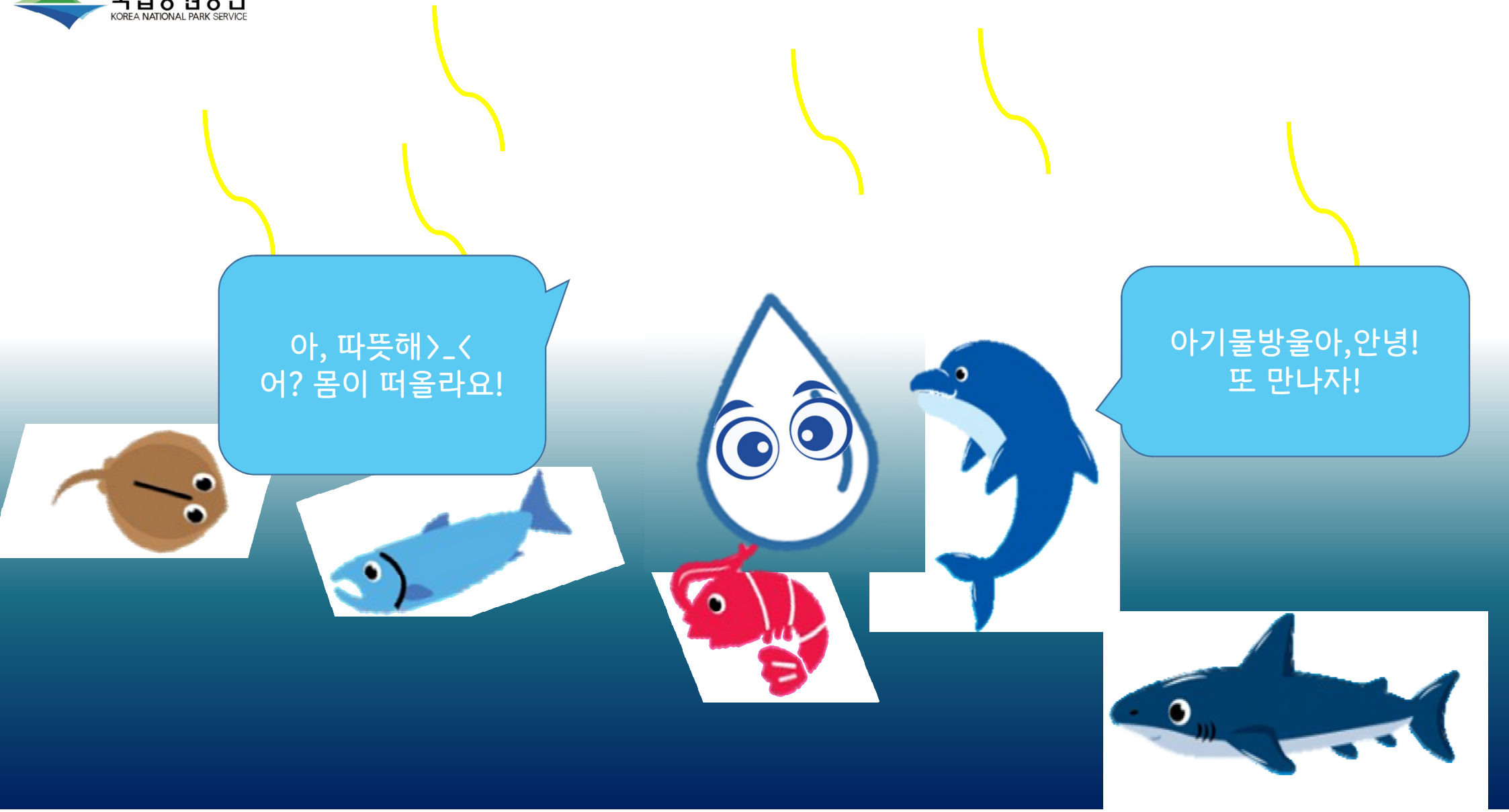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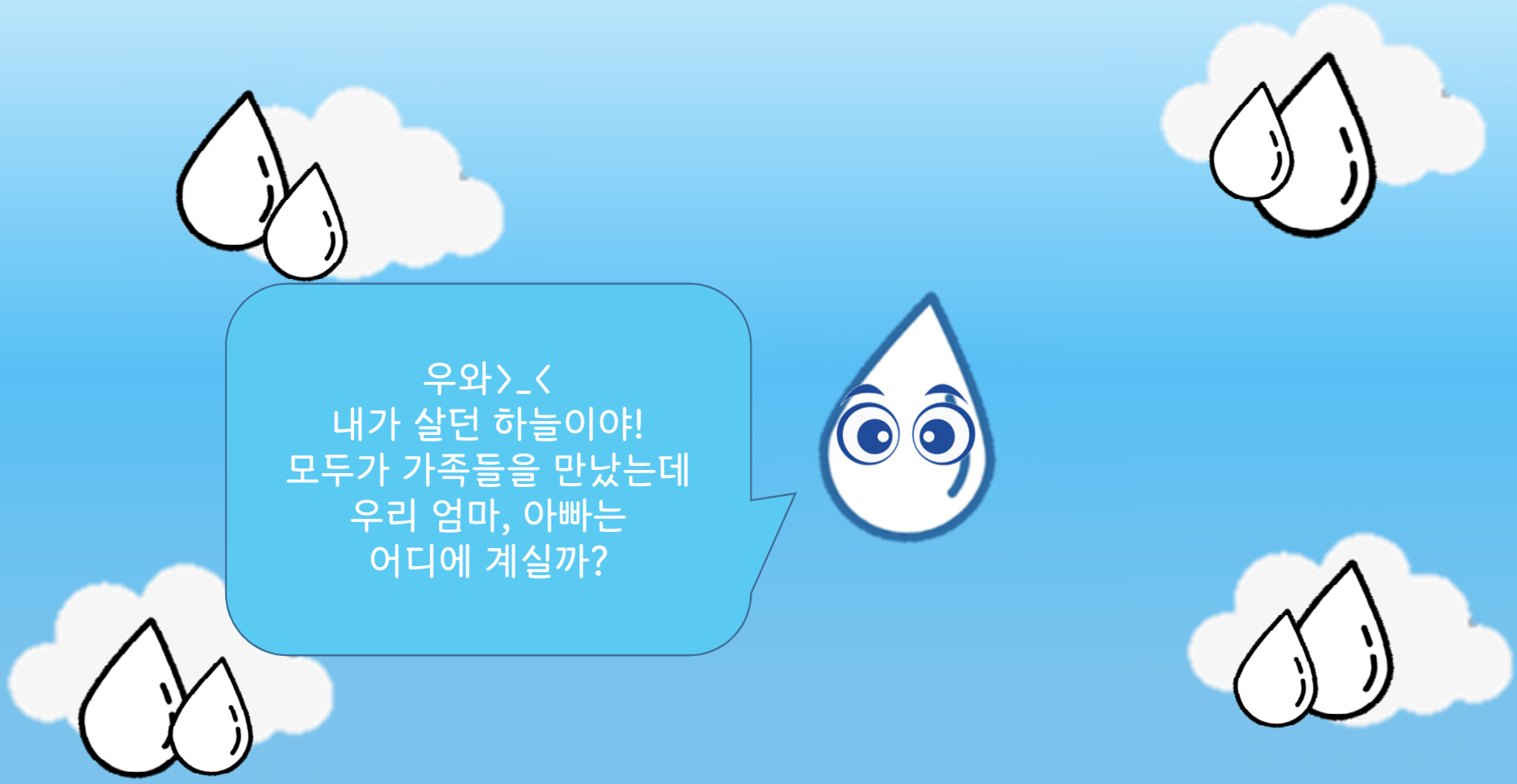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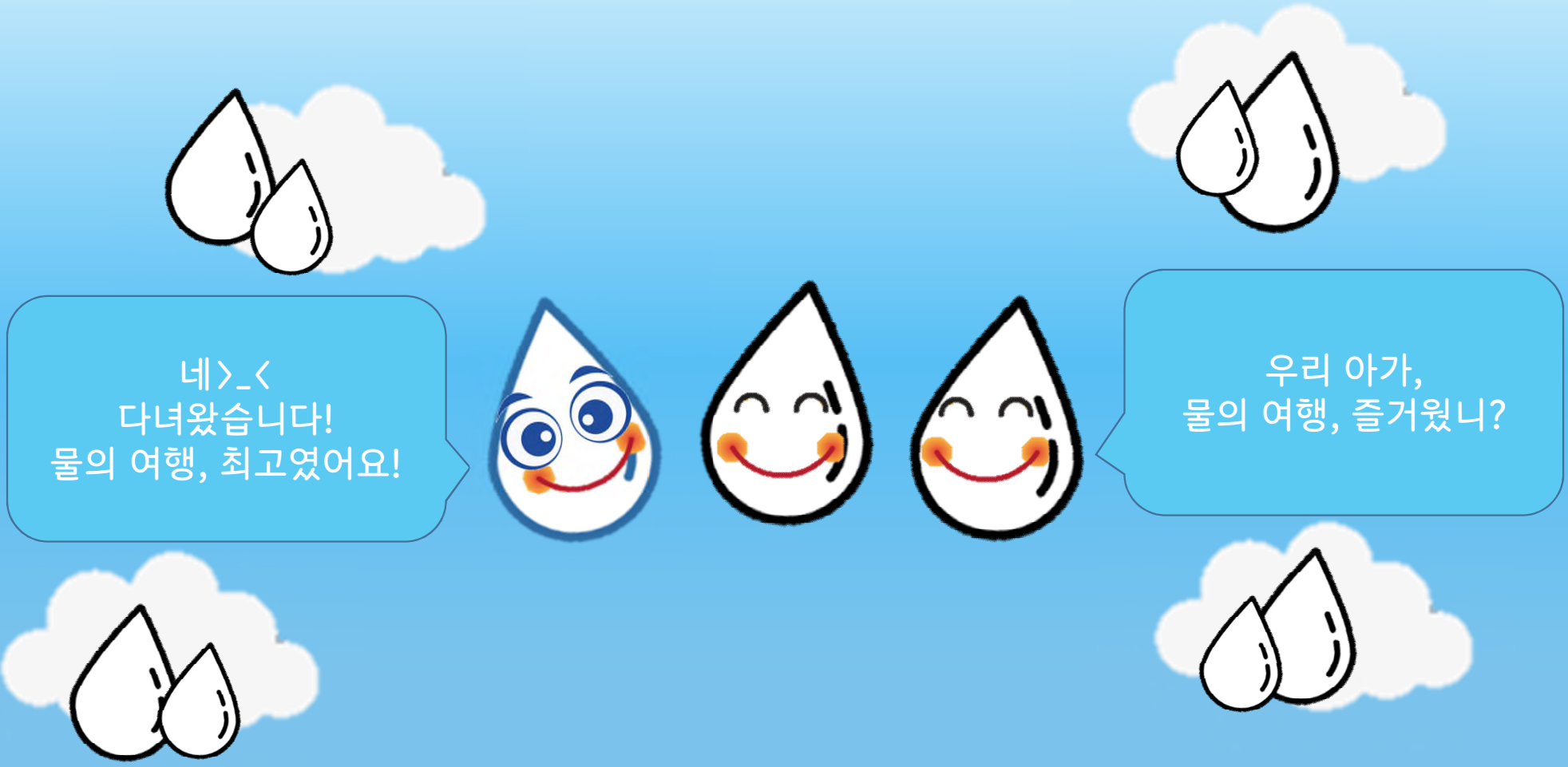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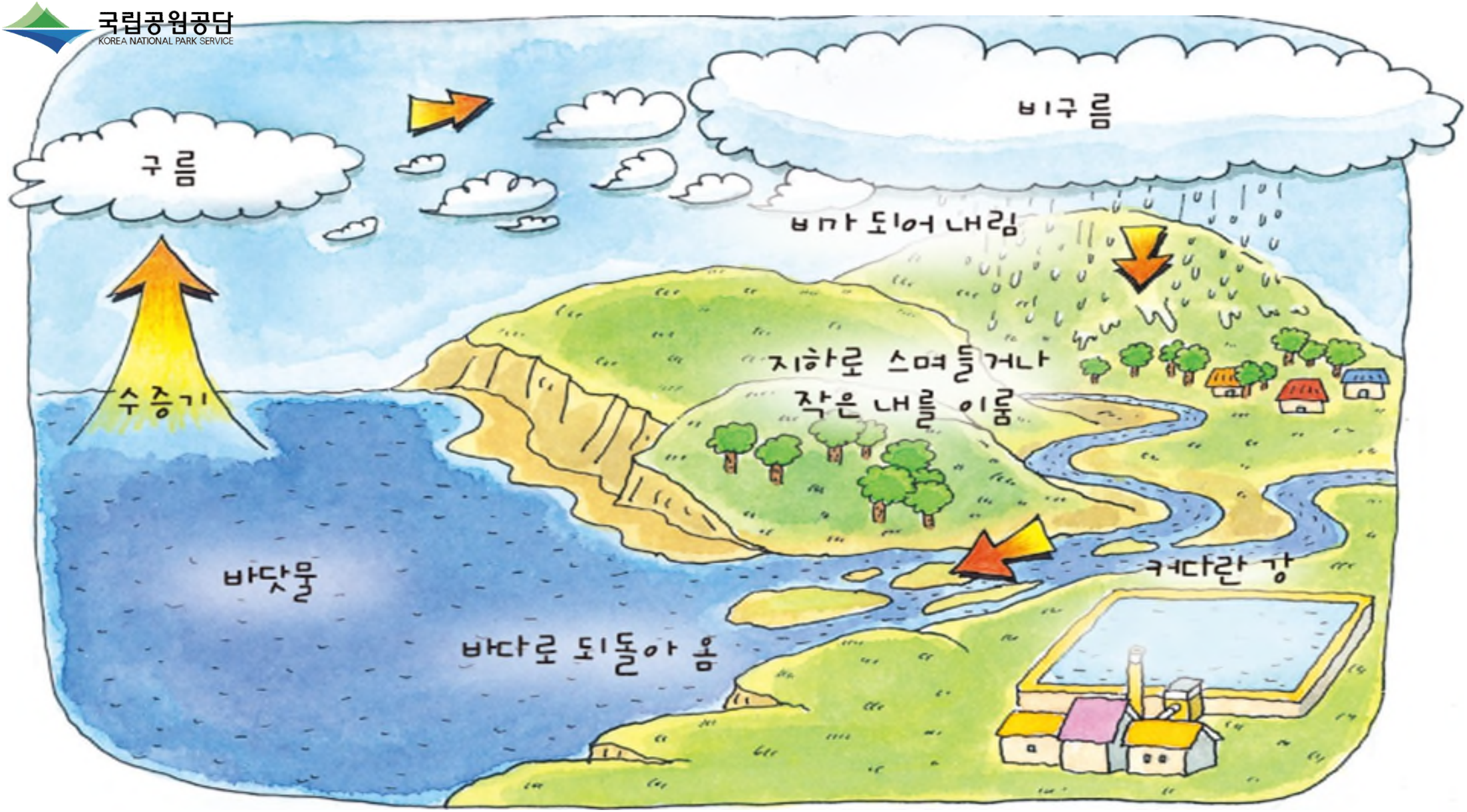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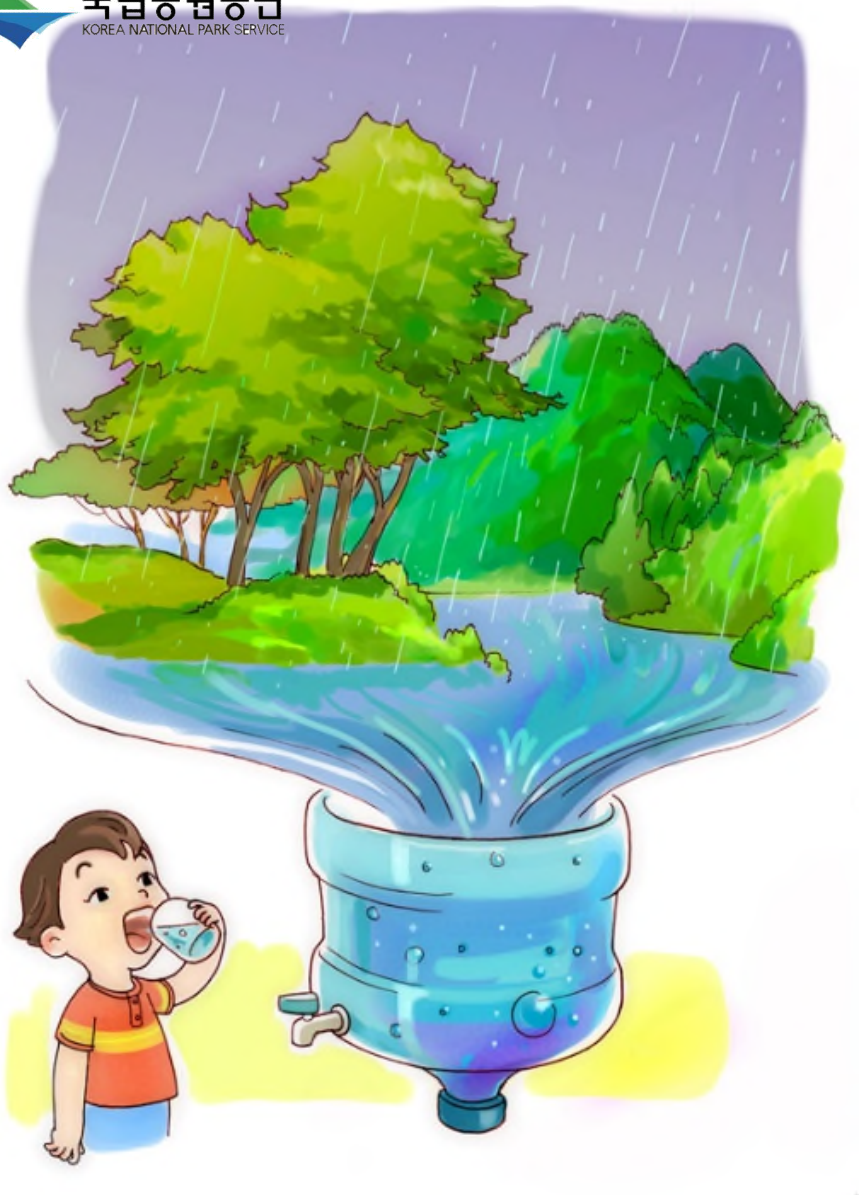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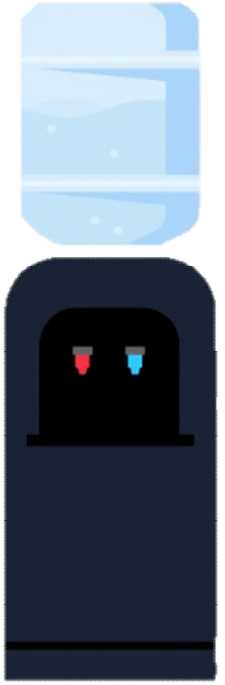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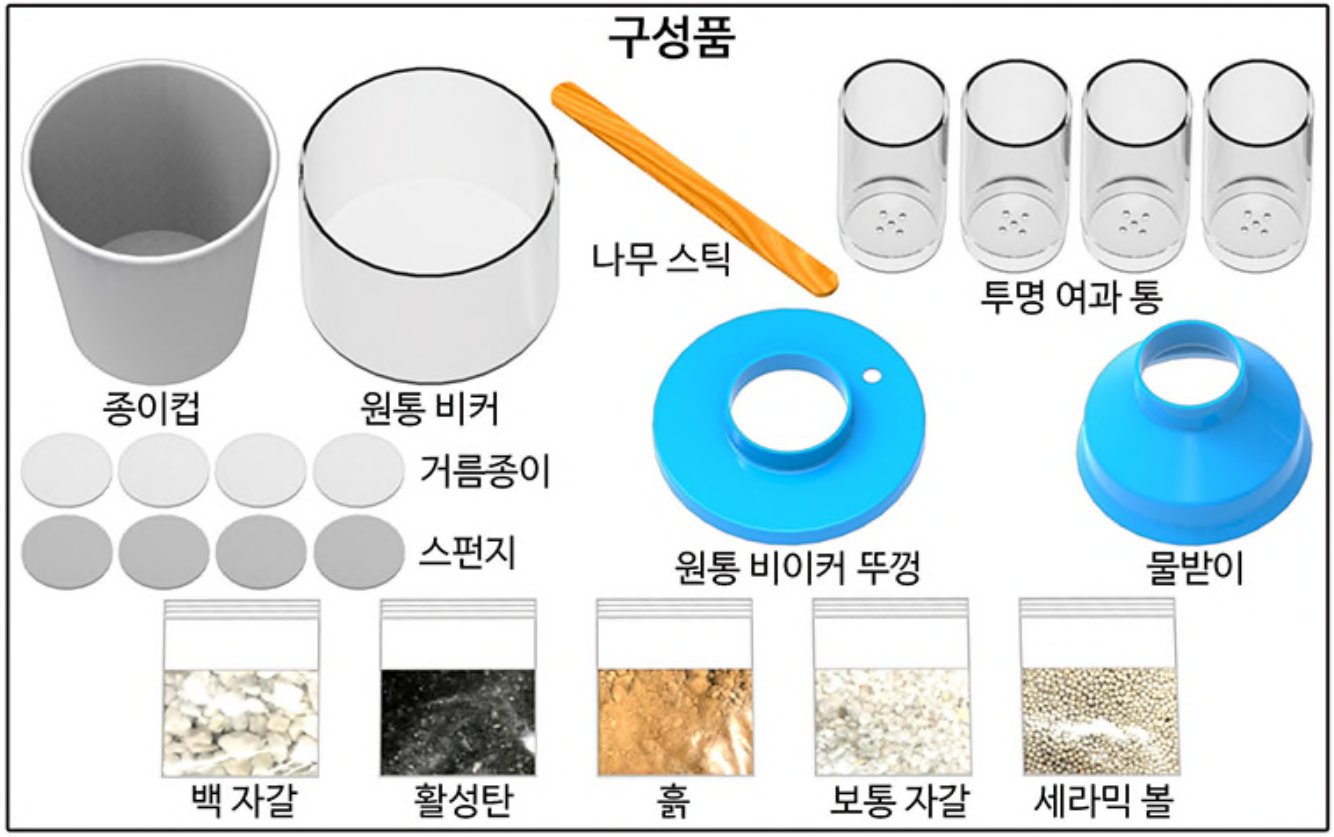
미니 정수기의 물은
실험만 하고
먹어선 안돼요!!



친구들, 어때요?
물의 여행은 물을 깨끗하게도 더럽게도 하는데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정수기'는
물을 정화하는 자연의 '숲'을 따라 만들었어요.
오늘의 체험은 '미니 정수기 실험'인데요.
함께 해볼까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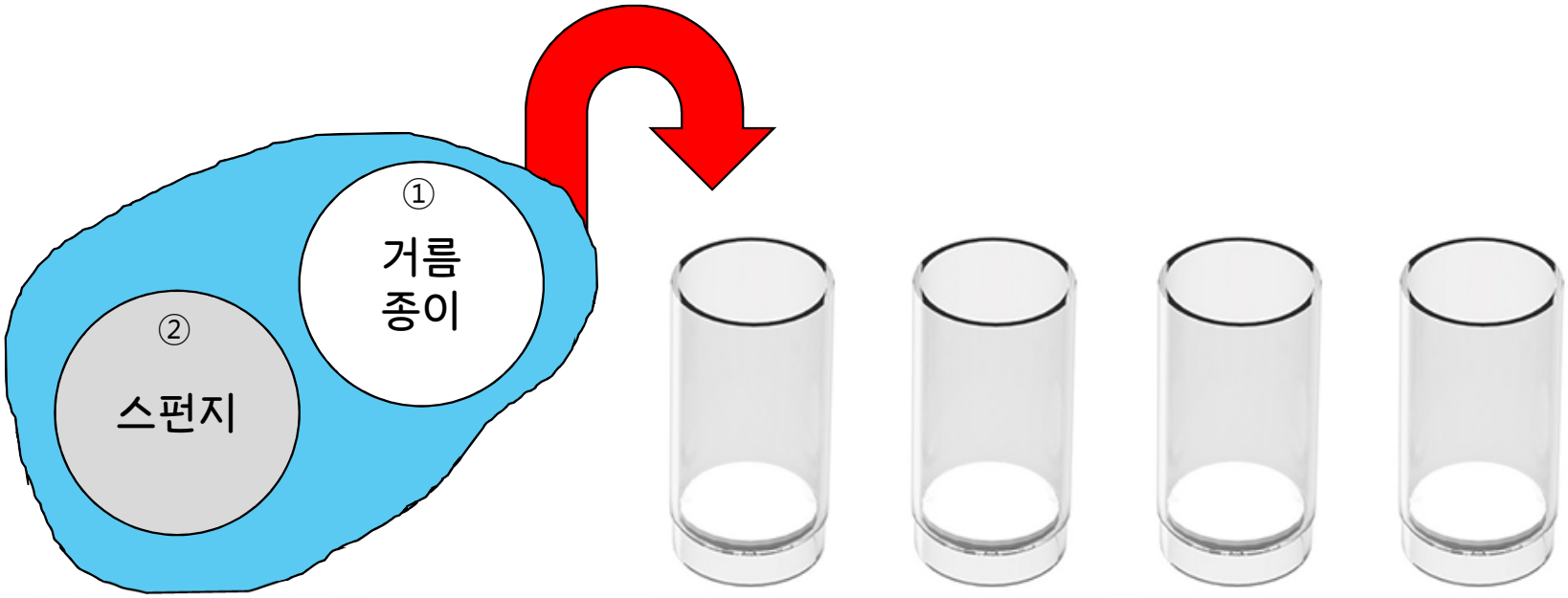
출처: 에듀사이언스





미니 정수기 만들기 실험 준비물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재료들이 많죠?
몸에 해롭진 않지만 입에 넣거나 만지고 눈을 비비지 않아요.
그리고 실험 후엔 손 씻기, 모두 알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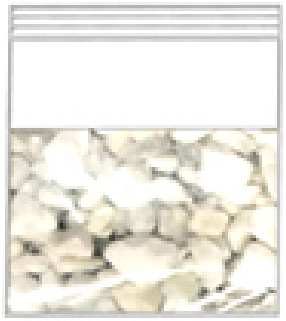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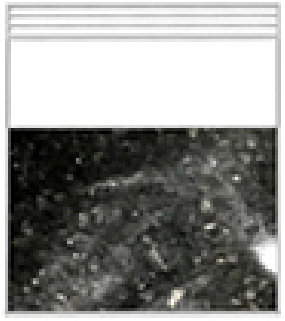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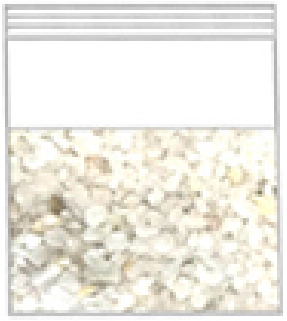


먼저 투명 컵 4개안에 각각 ①번 거름종이를 먼저 넣고
그 위에 ②번 스펀지를 넣어요.
컵이 4개이니까, 친구들 한 명씩 천천히 넣어 보아요.
종이와 스펀지가 컵에 잘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손가락으로 톡톡 눌러서 컵 바닥에 잘 넣어 주세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백 자갈


활성탄


보통 자갈


세라믹 볼



모두 잘 넣었나요?
그럼 이제 작은 봉투에 들어있는 4가지의 돌을 소개할게요.
백 자갈과 보통 자갈, 까만색의 활성탄, 동글동글한 세라믹볼이에요.
과연,
이 돌들은 무엇이며 정수기엔 왜 필요한 걸까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우리 친구들,
손바닥보다 작은 돌이 자갈이에요!



먼저 백 자갈은 큰 하얀색 자갈, 보통 자갈은 작은 자갈로,
자갈은 커다란 돌이 부숴져서 만들어진 작은 돌이에요.
“바윗돌 깨트려~ 돌덩이~돌덩이 깨트려~ 돌멩이~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이란 노래의 그 자갈이랍니다!
자갈을 넣는 이유는 물에 있는 크고 작은 덩어리를 거르기 위해서입니다.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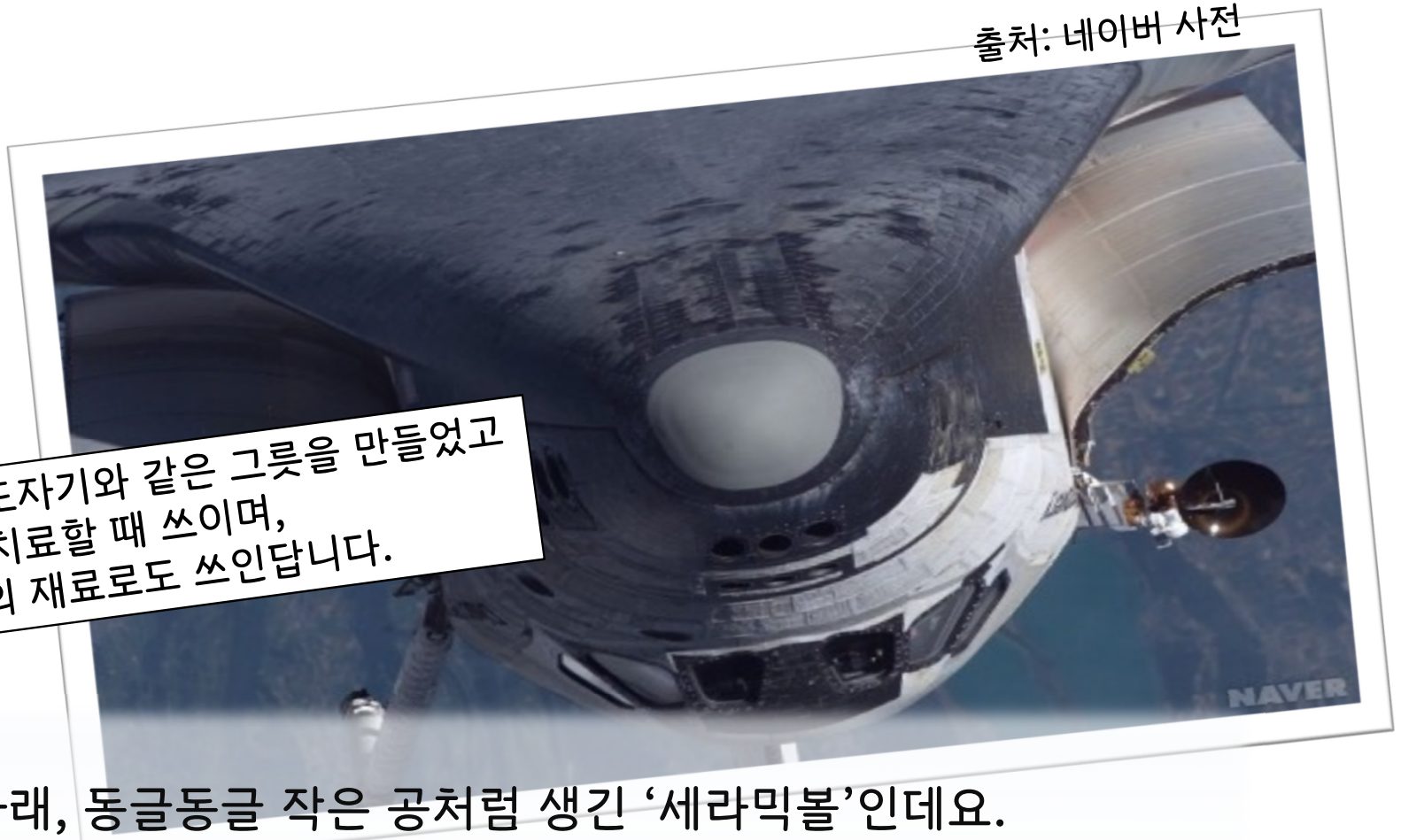
옛날부터 간장, 된장을 만들 때에도
숯을 이용해서 나쁜 균은 걸러내고
맛있고 몸에 좋게 만들었어요~



세번째, 까만색 돌이 보이죠? 이건 '활성탄'이라고 불러요.
나무를 태워 만든 '숯'아나요?
이 숯에 약을 넣어서 만든 나무돌인데 자세히 보면 구멍이 많아요.
활성탄을 넣는 이유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마시면 아플 수 있는
알갱이들을 구멍 안으로 빨아 들여서 물을 깨끗이 하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출처: 네이버 사전



세라믹은 옛날엔 도자기와 같은 그릇을 만들었고
치과에선 치아를 치료할 때 쓰이며,
튼튼해서 우주선의 재료로도 쓰인답니다.



맨 아래, 동글동글 작은 공처럼 생긴 '세라믹볼'인데요.
세라믹은 도자기처럼 우리가 쓰는 그릇을 만드는 데 쓰여요.
그런 세라믹을 작은 알갱이처럼 만들어 둔 것인데요.
세라믹볼을 넣는 이유는 우릴 아프게 하는 병균을 없애서 **소독**하기 때문이에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너무 가득 넣으면 물이 통과하기 힘들어요.
투명 컵에 절반까지 넣어 보아요~



백 자갈 보통 자갈 활성탄 세라믹볼



아하, 그렇구나!
모두 물에서 더럽거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없애서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돌들이었어요.
그럼 투명 컵 안에 4개의 돌을 절반만 넣어 볼게요!
같이 있는 작은 스푼으로 천천히 담아 볼까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4개의 투명컵을 조심조심~
차례차례로 탑을 쌓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4개의 투명 컵을 ① 백 자갈, ② 보통 자갈,
③ 활성탄, ④ 세라믹볼 순서대로 탑을 쌓고
맨 위엔 깔때기를 맨 아래엔 물통을 연결해서
‘미니 정수기’를 완성해보아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흙이랑 물을 넣고
만든 흙탕물,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이제 미니 정수기 실험, 시작!
흙탕물을 조심조심~ 부어서
물이 어떻게 걸러지는지 관찰해보아요!



완성된 '미니 정수기'에 이제 흙탕물을 넣어서
물이 걸러지는 지, 관찰해보고자 합니다.
흙탕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과연,
흙탕물은 어떻게 될까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물은 언제나 여행을 해.
친구들에게 깨끗한
물방울로 늘 찾아가고 싶어!



어때요? 모두 맑은 물이 나왔나요?
처음 흙탕물보단 맑아졌지만 아주 하얗거나 투명 하진 않죠?
친구들이 잘못 해서 그런 걸까요?
아뇨, 자연은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집까지 오는 수돗물은 이미 정수장을 통해
깨끗하게 걸러진 물을, 다시 정수기로 걸러내는 거죠.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친구들,
내가 깨끗한 물방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니,
우리모두 계곡이나 강의 물을 깨끗해 보인다고 그냥 마셔선 안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균이 있을 수 있어서 아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연은 강하고 엄마, 아빠처럼 모든 생명을 품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물을 많이 쓰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땐 아기 물방울이 더욱 더러워지겠죠?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소중한 “물”을 지키는 약속!!

1. 샴푸랑 세제는 조금만 써요.
2. 쓰레기는 쓰레기 통에 버려요.
3. 가까운 곳은 걸어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고장엔 가장 큰 한강과 가장 긴 낙동강의 시작이 있고
물은 여행하며 사람도 동물도 모두에게 도움을 주었죠.
우리 친구들,
이러한 물을 위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좋아요, 물은 하늘에선 수증기로, 땅 위에선 강으로,
땅 속에선 지하수로, 바다로.. 우리 주변에 항상 있죠.
고마운 물, 우리가 지키기 위해 친구들이 한 약속은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동물, 식물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자랑스런 친구들을 '어린이 물 지킴이'로 임명할게요!